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가 국내 최초로 환자의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당사자는 2월 폐 조직 검사를 받던 중 폐혈관이 터지면서 곧바로 뇌사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인공호흡기로 연명해 오고 있던, 올해 76세 할머니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평소 이 할머니의 언행이나 구체적 행동 사례들로 미루어볼 때, 만약 의사표현이 가능했다면, 인위적인 의료장치를 부착하면서까지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에 법원이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 사건은 병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까지 갈지도 모르는 재판절차가 남아 있지만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논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 여부를 더욱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품위 있게 죽을 권리’의 앞과 뒤

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의 합목적 의미 때문에 종교계 및 관련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일반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현대 윤리학은 이와 같은 윤리적 갈등의 해결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의 속성상 정답을 내놓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지역이나 민족,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종교 및 문화 등에 따라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가치관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존엄사 허용의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경제적 이유로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가족 등 제삼자의 자의적 판

단과 개입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이는 여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다. 환자 본인의 존엄하게 죽을 인격권이 다른 이유로 인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그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직접적으로 의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가자의 경우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자살, 즉 요즘 말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듯한 언급도 없지 않아 현대적 의미의 적극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존엄사가 허용되거나 적어도 암암리에 묵인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한다.

관건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말하자면 존엄사의 선택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숙고해야 할 발안이자 이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진정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불교적 지혜가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존엄사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불교 호스피스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환자들에게 생의 마지막 몇 개월을 생사를 초월한 불제자답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보살펴준다면 존엄사의 공개적 허용이 안고 있는 본질적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불교복지의 새로운 길

강박 지안 스님은 <금강경> 강의를 할 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 강조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면회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따뜻한 의복을 준다 해도 그를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비유를 들면서, 불교가 지향하는 복지의 궁극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란 현실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하고 헐벗은 사람이 따뜻하게 입혀야 한다.

불교계의 복지 사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할 성장을 보여 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설립 14년 만에 700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스님과 불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종사자들도 해를 더해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 한다. 무엇보다 복지의 질적인 성장도 '쾌속'으로 평가되고 있어 시설 수확에 가속이 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금 불교복지의 새로운 진화를 위한 의제를 안고 있다. 제10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세미나에서 생태운동과의 소통, 노년 복지공동체로서의 생활 가능 등이 새롭게 관심 가져야 할 분야로 거론됐다. 그간 시설과 시스템의 확대와 정착에 매진해 왔던 불교계 복지 패권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법론의 개발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불교복지의 성장 동력은 자비실현을 통한 정토건설의 '원력'이다. 이제 환경 생태 등의 의제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접목시킨 불교복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관련기관과 학자들의 협력을 기대한다.

종조 헌장 정신으로 화합을

태고종이 중국 절강성 천호암에 종조 태고보우 국사를 헌장(獻彰) 하는 비를 세우고 법회를 봉행한다고 한다. 천호암은 태고 스님이 스승 석유정공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은 곳이다. 태고종의 종조 헌장 사업은 종단의 뿌리를 명확히 인식해 가르침을 흐리지 않겠다는 종단의 발원으로 보인다.

태고종은 최근 1년 여 동안 내부의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물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그 갈등은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고 종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종조의 존재를 재인식하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어 받았다고 다짐하는 것은 신선해 보인다.

내부의 갈등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명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정치적 피곤함'을 잊고 종단의 뿌리 재인식 불사를 추진한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현세인의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갈등에 눈과 귀를 잃고 근본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태고종의 종조 헌장 불사는 종도들이 보다 거시적이고 대응적인 차원에서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열린 공청회에서 운산 스님은 확실한 조사를 통해 잘못을 가리고 그에 따라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승가회도 철저한 조사와 명백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국면은 팽팽하지만 공청회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합의 물꼬 트기에 대한 기대도 안겨준다. 종조를 헌장하는 정신으로 화합하는 태고종의 모습을 보고 싶다.

신 외에 그리고 내 주변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해하는 것은 더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따뜻한 사람

저의 많은 경험은 나중에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마음속을 항상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가족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의 행동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 신문에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많은 돈이나 권력, 지위·학력을 자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과연 아들에게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대학생의 아버지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이제 그 학생에 대해 엄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쓸쓸한 낯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그의 아버님께 아들의 선생으로서 함께 감사드리고 싶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 가득하시길 마음 다해 기원드립니다. 너무 관세음보살.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무조건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3 당신의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꿈을 꾸고 있지만 아버지께 저의 꿈을 말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물론 다른 직업보다 힘들고 돈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직업이다. 경찰관은 음주단속 한다고, 범죄자들 잡거나, 농철을 경우 국민이나 정부에게 욕을 먹고, 일반 업무직 공무원들을 이리저리 핑계로 욕을 먹지만 소방관은 그렇지 않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인 동시에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로 사회에서는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신념 깊은 소방관으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십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와 같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며 조금 빨리 가겠다고 주변사람들을 짓밟지 않을 것이며 뒷사람이 돼서도 후배들에게 훌륭한 선배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돌아와서는 사랑스러운 남편,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다보다 깊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나 자

아버지의 모습에서 배우요

아버지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주는 소방관이십니다. 아버지는 25년 이상 소방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구해 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고 배웠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시던 때 아버지는 피곤하지만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같이 놀아 주셨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봉사와 희생정신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아버지와 같은 소방관이었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저는 다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

빙의, 제대로 알자

빙의의 시대2

지은이/일광(逸光) 신국판 /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일광 _ Tel. 010-5040-7679
 오리출판사 Tel. 02-313-5047